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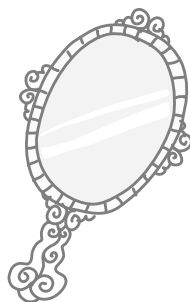
나를 이길 수 없어도

현대청운고1-6 임주하

가위바위보,
아무리 애써 봐도 결과는 무승부
그래, 나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나를 용서해 보자 하였더니
거울 속의 나 자신과는
포옹도, 악수도, 짧은 대화조차도 할 수 없구나.
나는 평생 나를 미워하게 될까

초라한 나를 못 견디어
거울을 와장창 깨버렸다.
그러나 깨지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들
깨지고 녹아내려도 다시 유리가 되듯이
무너지고 넘어져도 돌고 돌아 ‘나’



희망을 머금은 뿌리를 이곳에 박고
작은 나무가 되어야겠다.
바람이 불어와도 유연하고 단단하게 버티며
초라한 나를 견뎌내야겠다.
조금 기울어진 거울이 찾아와
한 뼘 키가 커진 나를 만날 때까지

어둠 속 촛개만 보였던 배경이
돌아보니
문득, 봄

